"세계 이동통신업체 중국 진출만이 살길이다"

미국 제치고 최대 규모로 성장한 중국 이동통신시장

중국의 이동통신시장은 이동통신 사업자들간의 경쟁적인 가입비 면제, 휴대폰 가격 인하 조치 등으로 가입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들어 가입자수와 수익면에서 모두 크게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에 따라 중국이 지난 7월말 이미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통신시장으로 부상했다는 보고서가 나와 업계에서 주목이 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8월 21일 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지난해 9월말 6,500만명에서 10개월만에 두배로 증가하여 지난 7월말 현재 1억 2,060만명으로 미국의 1억 2,010만명을 제치고 선두로 나섰다고 보고했다.

지난 6월중 중국의 통신사업 총수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증가한 1,620억위안(195억 7천만달러)을 기록했다.

특히, 유선사업자인 차이나 텔레콤의 비중은 전년동월대비 4.4%포인트 감소한 53.5%를 기록하였으나, 무선사업자인 차이나 모바일 및 차이나 유니콤의 비중은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6%포인트, 2.8%포인트 증가한 36.9%, 9.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성장 지속될 듯

현재 중국의 경우 이동전화보급률이 7월말 현재 9.2%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이동전화보급률이 40%를 넘어선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앞으로도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신식(信息)사업부는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매년 20% 이상씩 증가하여 2005년말에는 2억 6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중국 이동통신시장은 차이나 유니콤의 전국 31개 성과 도시를 대상으로 한 CDMA 네트워크 구축, 차이나 모바일의 GSM 네트워크의 대대적인 확장 등으로 급속한 발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차이나 유니콤은 CDMA 입찰을 통해 루슨트 테크놀로지, 모토로라, 노텔, 에릭슨, 중싱(中興), 삼성전자 등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총 25억달러 규모의 장비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이동통신시장의 급성장과 중국 정부의 산업자유화 정책 등으로 세계 통신장비업체 및 통신서비스업체들의 중국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이동통신시장은 모토로라(31%), 노키아(27%), 에릭슨(14.7%) 등 외국기업이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中, 통신시장 경쟁 도입

중국 정부는 현재 WTO에 가입할 경우 발생하게 될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자국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신식사업부는 그 동안 통신시장을 장악해 왔던 차이나 텔레콤으로부터 차이나 모바일과 차이나 유니콤을 분리시키는 등 독점체계였던 통신시장에 경쟁의 원칙을 도입하였다. 또한 WTO가입에 맞춰 통신시장의 자유화와 국제적 수준에 맞는 통신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휴대폰업체들도 해외업체들과 일대일 대응이 아닌 다대일 대응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최근 ZTE · 다탕 · 레전드 · 팬더 · 이스트커뮤니케이션 등 17개업체가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었다. 그러나 중국산 휴대폰이 처음 시장에 나온 것이 불과 3년 전으로 해외 선진 이동통신업체들과 경쟁을 하기에는 아직 디자인 등에서 취약한 상황이다.